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

장석정*

1. 서론

성경 본문을 번역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단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해야 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작업이 되기도 한다.¹⁾ 우리말 성경은 번역에 있어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모습을 갖추었다. 구약성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MT(마소라 본문) 대신 LXX(칠십인역)을 따라서 번역했다. 예를 들면 MT에서 주어와 목적어 등의 수 일치가 안 되어 있으면, LXX의 본문을 차용해서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²⁾

필자는 출애굽기 4:13의 경우에 있어서, 1911년에 나온 우리말 최초의 성경인 『성경전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성경들이 일관성 있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MT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경전서』의 번역자들이 참고했던 원문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 중국어 성경들, 그리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

- 1) 구약성서에 대한 우리말 번역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48-159; 정일승,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와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우리말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40 (2017), 7-29.
- 2) 칠십인역의 우리말 번역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들을 참고하라. 김근주, 김선중, 김정훈,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 김근주, 김선중, 김정훈,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2-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94-121.

고 일본어 성경 등의 번역대본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말 번역의 유래를 추적해 보려고 한다.

2. 출애굽기 4:13의 맥락 이해

학자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설화를 비제사장(non-priestly) 자료로 보는 반면에, 출애굽기 6장의 모세 소명 설화는 제사장(Priestly) 자료로 간주한다.³⁾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호렘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행해야 하는 이적들을 보여 주는 대목(1-9절)에 이어서 모세 자신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인도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대목(10-17절)이 나온다.

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 주신 후에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 일을 맡으라고 명령을 했으면, 모세 자신이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암시되어 있다.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말하고 있다. 왜 자신이 아직도 말을 잘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정적인 응답을 무려 5번(3:11, 13; 4:1, 10, 13)이나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결코 어눌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달변의 느낌을 받는다. 과연 모세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기준이나 능력은 무엇인지 궁금하게 한다.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3) T. Römer, "From the Call of Moses to the Parting of the Sea", T. Dozeman, C. Evans, and J. Lohr, eds., *The Book of Exodus: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VTSup 164 (Leiden: Brill, 2014), 127-129.

와가 아니냐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한다. 11절에 따르면 모세가 신경을 쓰고 있는 ‘말을 잘하는 능력’은 결국 사람의 입을 만들었던 창조주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지전능한 창조주 여호와 앞에서 모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사람의 입을 포함해서 귀와 눈도 모두 여호와가 주관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여호와와는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다.⁴⁾

이 정도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모세도 출애굽 지도자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맡는 자세를 보여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와는 다르게 출애굽의 인도자 역할을 자신이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13절에서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바로 이 구절이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다.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 인도자의 사명을 맡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능력이 있는 자, 즉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하면서, 그에게 맡겨질 출애굽 지도자의 소명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모세의 이런 반응은 모세가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을 낮추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모세는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⁶⁾ 그런데 이런 13절의 우리말 번역은 MT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기로 하자.

3. 출애굽기 4:13의 MT 내용 분석

וַיֹּאמֶר בִּי אֲדֹנָי שְׁלַחנָא בִּידִּתְּשֻׁלָּח

4) 참고로 12절에 대한 탈굴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탈굴 웅켈로스) and my word will be in your mouth

(탈굴 네오피디) with my mouth I will be with the speaking of your mouth

5) S. Kürle, *The Appeal of Exodus: The Characters God, Moses and Israel in the Rhetoric of the Book of Exodus*, Paternoster Biblical Monographs (Milton Keynes: Paternoster, 2013), 160.

6) (민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한 모세의 겸손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절을 참고하라.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즉, 모세는 자신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사역 그가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제발 보내시려는 다른 자를 보내소서.”

『개역개정』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MT의 의미는 위에서 보듯이 『개역개정』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MT는 단순히 모세 자신의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말 성경의 번역 내용은 모세 자신은 보낼만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MT에서 사용된 **יִגַּע** (‘please, oh’)라는 접두사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 시작하는 표현이며, 모세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접두사를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10절).⁷⁾ 이는 간청이나 불평, 혹은 변명의 내용과 함께 사용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모세의 말 속에 ‘오 나의 주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만을 나타내는 어조를 더해준 꼴이 되었고,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는 그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⁹⁾

13절까지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모세의 말하는 능력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라고 하시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다(12절). 그러나 MT에 따르면, 모세는 “보내시려는 다른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다(13절). 구약성서에서 이런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을 상대로 가장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¹⁰⁾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14절),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욥과 같은 폭풍우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욥 38:1),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즉, 하나님은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변자의 역할을 맡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신다. 토마스 도즈만(Thomas Dozeman)은 1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And he said, “O, my Lord, send, please, by the hand you send.”¹²⁾

도즈만은 이 구절의 LXX의 본문을 “appoint another who is able”(능력 있는 다른 자를 임명하소서)로 번역하면서 아마도 4:10에서 모세가 자신이 말

7) H. Utschneider and W. Oswald, *Exodus 1-15*, IECOT (Stuttgart: Kohlhammer, 2015), 128.

8) W. H. C. Propp, *Exodus 1-18*, AB 2 (New York: Doubleday, 1999), 213.

9) Ibid.

10) H. Utschneider and W. Oswald, *Exodus 1-15*, 129.

11) Ibid.

12) T. Dozeman, *Exodus*, ECC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7.

을 잘하지 못하며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내용과 부합하도록 LXX가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¹³⁾ 이런 지적은 필자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요점과 일치한다. 단순히 자신이 인도자의 사명을 맡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라는 뜻을 LXX의 본문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LXX는 모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MT의 내용에서도 모세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윌리엄 프랍(William H. C. Propp)이 그의 출애굽기 주석서에서 이 구절을 번역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Then he said, "Please, my Lordship, send through **the hand** you would send."¹⁴⁾

프랍은 이 번역에서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도즈만처럼 MT에 있는 대로 ‘손’(手)을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보낸다’는 것은 물건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전달자면 누구나 보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즉, 프랍은 이러한 모세의 태도를 겸손한 것으로 보면서, 이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민 12:3)의 이미지와 일치하며, 문맥상으로 모세의 이런 반응은 공손하게 ‘묵종(默從)’하는 것으로 본다.¹⁶⁾ 따라서 MT의 내용도 모세의 겸손함을 보여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모세의 5번째 거절에 해당하는 13절의 히브리어 구문은 어색하게 보이는데, 도즈만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 인도자의 사명을 묵종(默從)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명을 맡을 의사가 없는 것인지를 묻는다.¹⁷⁾ 도즈만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결론짓지 않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에는 모세가 사명을 맡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수토(U. Cassuto)도 모세는 13절의 말을 함으로써, ‘모세 자신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길 원하는 자를 보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¹⁸⁾ 자기 자신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보내시라는 말이다. 비록 MT와 LXX는 그 본문의 뜻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

13) Ibid., 119.

14) W. H. C. Propp, *Exodus 1-18*, 182.

15) Ibid., 212.

16) Ibid.

17) T. Dozeman, *Exodus*, 143.

18)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s, tran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7), 49.

으로 MT 자체의 본문에 근거해서 볼 때 모세는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미는 사르나(Nahum M. Sarna)가 그의 출애굽기 주석서에서 4:13을 번역한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Please, O Lord, make someone else Your agent.”¹⁹⁾ 모세 자신은 고려의 대상에서 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대리인으로 삼으시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MT는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시려는 사명을 맡을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4. 영어 성경들과 LXX 분석

『개역개정』의 번역은 MT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으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 학자들의 주석서에는 13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RSV	But he said, ‘Oh, my Lord send, I pray, some other person.’
NRSV	But he said, ‘Oh, my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Houtman	But Moses said, ‘O my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Dozeman	And he said, “O, my Lord, send, please, by the hand you send.”
JPS	And he said: ‘Oh Lord, send, I pray Thee, by the hand of him whom Thou wilt send.’
NJPS	But he said, “Please, O Lord, make someone else Your agent.”

이상의 영어 번역들은 분명히 우리말 성경 번역과는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이 영어 성경들이 MT의 본문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칠십인역을 보면 이 구절이 MT와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며, 우리말 번역 성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XX καὶ εἶπε Μωϋσῆς: δέομαι, Κύριε, προχειρίσαι δυνάμενον

19) N.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21.

ἄλλον, ὃν ἀποστελεῖς.

And Moses said, please Lord, appoint **another able person**, whom you shall send.
모세가 말하길, “오 주님, 당신이 보내실 다른 능력 있는 자를 임명하소서.”

LXX가 MT와 다른 것은 칠십인역의 번역대본(Vorlage)이 MT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칠십인역이 번역될 기원전 2세기경에 참고한 히브리어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달랐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MT의 본문에 나온 뉘앙스대로 보면, 모세는 자신도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는 속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 선택하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는 모세 자신만 아니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심리도 깔려 있다고 하겠다.²⁰⁾

그러나 이런 MT의 의미와는 다르게 LXX의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능력 있는 다른 자**’를 보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²¹⁾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은 LXX의 본문의 의미와 유사하게 번역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성경 번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MT가 아닌, LXX의 본문에 따라서 번역하고 있는데, 특히 문장의 수와 성의 일치 등의 문제가 대두될 때 그렇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4:13의 경우에는 그런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응답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모세의 심리 상태를 짐작하게 해 주는 뉘앙스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나흐마니즈(Nachmanides)²²⁾에 의하면, 모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출애굽의 인도자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여겼으며, 랍비 전승에서는 인도자의 역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라 천사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으며, 아론이 인도자 역할에 적임자라는 존경심의 발로에서 13절에서처럼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³⁾ 물론 MT는 모세가 13절처럼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모세는 4회에 걸쳐서 자신이 출애굽 인도자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는 모습

20) C. Houtman, *Exodus*, vol. 1, HCOT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413.

21) Ibid. 하우스트만(Cornelis Houtman)은 이런 LXX의 번역이 모세 자신의 부적합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2) 본명은 모세 벤 나흐만(Moses ben Nahman, 1194-1270)이고 13세기에 활동한 랍비이자 성서 주석가였다.

23) C. Houtman, *Exodus*, 413-414.

을 볼 수 있었다.²⁴⁾ 각각의 경우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응답들을 주셨다.²⁵⁾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 인도자의 사명을 받아들일 만도 한데, 정작 모세는 여전히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날 개신교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 『개역개정』(1998) 이외의 다른 한글 성경들의 번역을 함께 비교해 보기로 하자.

『개역한글』(1952, 1961)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개역개정』(1998)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표준』(1993), 『새번역』(2001)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공동』(1977), 『공동개정』(1999)

모세가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사양하자,

『성경』(2005)

그러나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이를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950년대 이후의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번역에 있어서 소위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할 만한/능력이 있는)을 넣어서 번역하고 있다. 그렇다면 1950

24) (출 3:11) “...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 3:13) “...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 4:1) “...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 4:10) “...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25) (1)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겠다.

(2)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3) 세 가지 표징들을 알려 주시고 그중 두 가지는 직접 체험하도록 하셨다.

(4)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년 이전의 한글 성경들의 번역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5. 최초 한글 성경들의 번역 분석

1900년에 신약성서가 번역 완료되어 『신약전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후, 1910년에 번역이 완료된 구약성서가 1911년에 『구약전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면서 같은 해 『성경전서』가 출판되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구약성서의 각 책들이 개정되면서 마침내 『성경개역』이라는 이름으로 1938년에 출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출애굽기 4:13에 관해서 살펴볼 우리말 성경들은 1911년도의 『성경전서』와 1938년의 『성경개역』이다. 1912년 영국성서공회 조선지부의 밀러(H. Miller) 총무는 개역위원회에 “번역자들과 개역자들, 편집자들의 지침서”(Rules for the Guidance of Translators, Revisers and Editors)를 전달하여 개역 성서의 번역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규칙서는 개역이 이미 확정된 본문을 교열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이지만, 때때로 새로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원천 본문은 히브리어 및 아람어, 그리스어 원전에서 옮기되 <제임스왕역> 등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²⁶⁾ 따라서 1911년에 출판된 『성경전서』는 이런 번역 지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겠다. 오직 1938년의 『성경개역』만이 이런 번역 지침에 의거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침서에 언급된 <제임스왕역>을 보면 13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King James Version(KJV, 1611)

And he said, O my Lord, send, I pray thee, by the hand of him whom thou wilt send.

17세기 초에 나온 KJV의 번역도 보다시피 MT를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제임스왕역>도 1982년에 개정되었고, 영국에서 나온 NEB, REB 번역 성경은 연도상으로 보아 1911년 『성경전서』의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단지 이 성경들의 번역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아래에 인용했으며, 이 성경들 또한 MT를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26) 또한 “짧게 줄인 풀이역(abbreviated paraphrase)을 삼가고 가능하면 직역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성서공회, “한글성경 번역사”, 3. <성경 개역> (1938),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4 (2020.12.1.).

New King James Version(NKJ, 1982)

But he said, "O my Lord, please send by the hand of whomever else You may send."

The New English Bible(NEB, 1970)

But Moses still protested, 'No, Lord, send whom thou wilt.'²⁷⁾

이제 위에서 언급한 우리말 최초의 성경인 1911년의 『성경전서』의 번역을 보기로 하자.

『성경전서』(1911) **골으되 주여 청컨대 가히 보낼만한자의 손에 부
탁하야 보내옵쇼셔**

출판 연도로 보면 1911년은 영국성서공회의 번역 지침서가 전달된 1912년보다 1년 전이다. 따라서 번역 지침서에 상관없이 번역이 가능했던 때의 우리말 최초 번역 성경이 바로 『성경전서』이다. 즉, 특별한 번역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번역은 LXX의 본문의 뉘앙스와 유사하게 번역했다.²⁸⁾

『성경전서』 이후에 나온 1938년 『성경개역』의 번역 원칙은 1912년의 번역 지침서에 따라서 히브리어 및 아랍어, 그리스어 원전에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 『성경개역』도 역시 1911년의 번역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경개역』(1938) **모세가 갈아대 주여 보낼만한자를 보내쇼셔**

이 번역이 이후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그리고 가톨릭 성경들도 이런 번역을 따랐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확인했다. 1911년부터 똑같은 번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필자의 관심은 ‘1911년 최초의 번역 당시에 번역자들이 참고했던 대본은 무엇이였을까’라는 것이다. 이환진은 이 당시 번역자들은 히브리어를 읽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그들이 참고했던 대본으로는 중국어 성경인 <브리지만-쾨벳순역>(1864)이 있었으며, 영어 성경인

27) NEB의 개정판은 1989년 출판된 The Revised English Bible(REB)이다.

28) 흥미로운 점은 LXX에는 없으나 MT의 본문에 있는 71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대본이었던 영어 성경들에는 이미 ‘hand’로 번역되어 있었다.

RV(1881)²⁹⁾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용어들과 표현들은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과 <쉐레쉐브스키 문리역>(1902)에서 빌려 오기도 했다고 본다.³⁰⁾ 또한 민영진은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참조하지 않았으며, 중국어 성경들과 영어 성경(<미국표준역>, ASV)³¹⁾을 대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본다.³²⁾ 반면에 김중은은 번역자들이 원칙적으로 『미국표준역』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³³⁾ 여기서 일단 번역자들이 참고했던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자.

RV(1881) And he said, Oh Lord, send, I pray thee, by the hand of
him whom thou wilt send.

ASV(1901) And he said, Oh Lord, send, I pray thee, by the hand of
him whom thou wilt send.

위의 경우처럼 두 가지 영어 성경들의 번역은 MT를 번역한 것이며,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출애굽기 4:13의 우리말 번역은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우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자들이 여전히 『성경전서』(1911)나 『성경개역』(1938)이 원문에서 번역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³⁴⁾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출애굽기 4:13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본문(MT)을 번역대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본문이 아닌 번역 성경들 중에서 번역자들이 영어 성경들과 함께 대본으로 삼았던 중국어 성경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9) RV = Revised Version.

30)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33.

31)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32)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43;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8-9, 각주 7에서 재인용.

33)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심천(深川) 김중은 구약학공부문집』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11;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9, 각주 8에서 재인용.

34)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11.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같은 쪽의 각주 17을 참고하라.

6. 중국어 성경들

중국어 성경은 그 번역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신구약이 모두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1800년대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1856년에 나온 <대표역본>(The Delegates' Version)(委辦譯本)이었다. 이 성경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중국어 성경이었다. <대표역본>과 함께 『성경전서』(1911) 이전에 출간된 세 종류의 중국어 성경들을 비교해 보자.

1. <대표역본>(1856)

曰 我主請遣他人 °

그가 말하길, “나의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2. <브리지만-컬버트슨역>(Bridgman-Culbertson's version, 1864)

曰我主獻求爾託爾欲遣者之手而遣焉

그가 말하길, “나의 주님, 간곡히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보내길 원하는 자를 보내십시오.”

3.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1875)³⁵⁾

摩西說求我主差遣那可以差遣的人罷

모세는 말하길, 나의 주님께서 보낼 수 있는 자를 보내십시오.

4.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文理譯)(1902)

摩西曰求我主遣所可遣之人

모세가 말하길, 나의 주님, 보낼 수 있는 자를 보내십시오.³⁶⁾

‘보낼 수 있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과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개역개정』의 “보낼 만한 자”와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출애굽기 4:13에 있어서, 『성경전서』의 우리말 번역은 중국어 성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1882년 누가복음이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래 한글 번역은 가속이 붙어서 1893년 번역자회가 모여서 번역 방법을 확정하게 된다. 선교사들은

35) 현대 중국어 성경 <화합본>(和合本)(1919)의 모본(母本)이다. 북경위원회는 구약 전체 번역을 쉐레쉐브스키에게 위임했고 그는 영어 <흠정역>과 독일어 <드 베테역>(De Wette)을 참조하여 히브리어 본문에서 번역하였다.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54.

36) 이상의 한문 성경의 우리말 번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임윤선 교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개역판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하고 한국인 조사들은 중국어 <대표역본>을 대본으로 번역하되 일본어 성경도 참고했다.³⁷⁾ 이런 과정을 거쳐 1911년 『성경전서』가 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대표역본>과 일본어 성경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서는 중국어 성경뿐만 아니라, 일본어 성경도 참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7. 일본어 성경들

여러 일본어 성경들 중에서 한국인 조사들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1911년 『성경전서』가 나오기 이전인 1887년에 출간된 <메이지역>이며, 비교 분석을 위해 <메이지역>을 기초로 하여 1955년에 번역된 <구어역>(口語譯)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김사요는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일본어 번역 성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으나, 그가 주로 분석한 한글 성경은 1938년의 『성경개역』이다. 그에 따르면, 번역 과정에서 한국인 번역자들은 한문역과 일본어 번역 등의 다수의 ‘저본’(底本)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면서, 일본어 역본으로는 시기적으로 1911년 이후와 1938년 사이에 출간된 <메이지역>의 개정본인 <대정역>(大正譯, 1917)과 <문어역>(文語譯, 1930)을 들고 있다.³⁸⁾ 그러나 출애굽기 4:13의 경우, 이미 1911년에 간행된 『성경전서』부터 일관되게 같은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사요가 분석한 일본어 번역 성서들은 연도상으로 볼 때,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메이지역>(Meiji Version, 1887)³⁹⁾

モーセイひけるはわが主よ願くは遣すべき者をつかはしたまへ

모세는 따지듯이 말했다. 주님, 바라옵기는 마땅히 보내실 사람을 보내십시오.

37) 김사요,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8 (2001), 217;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49-51.

38) 김사요,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217.

39) 출애굽기는 헵번(Hepburn)에 의해서 1884년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Doron B. C.,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rill, 2013), 56.

2. <구어역>(口語譯, 1955)

モーセは言った、「ああ、主よ、どうか、ほかの適当な人をおつかわしてください」。

모세는 말하기를, 오! 주님, 아무쪼록 다른 적당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⁴⁰⁾

먼저 <메이지역>에서 “따지듯이”라는 번역은 MT에서 사용된 וְכִי의 맥락을 번역한 듯하다. 따라서 일본 성경 번역자들은 MT도 참고해서 번역하면서 동시에 LXX의 맥락에 따라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LXX 본문에는 “따지듯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이지역> 번역을 주도했던 헵번(Hepburn)에 따르면, 번역자들은 ‘원 히브리어 본문’(original Hebrew text)에 따라서 번역했지만, 또한 다른 자료들을 사용했다고 한다.⁴¹⁾ 헵번 자신은 히브리어 실력이 모자라서 구약성서 번역을 시도하기를 주저했다.⁴²⁾ <메이지역>의 번역자들은 계속해서 Revised Version 영어 성경이 필요하다고 미국과 영국 협회에 요청했으며 1884년까지도 이런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오로지 구약성서의 원전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영어 번역 성경에 의존했으며, 혹은 적어도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그것에 맞추려고 했다고 하겠다.⁴³⁾

또한 <구어역> 번역(“다른 적당한 사람”)도 역시 MT가 아닌 LXX의 낱앙스에 따라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이지역>에서 ‘마땅히’라는 표현을 통해 모세 자신은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구어역>에서도 모세는 출애굽 인도자 역할에 ‘적당한 사람’을 사용하시라고 말함으로써 본인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1887년의 <메이지역>과 이를 기초로 하는 1955년의 <구어역>의 번역 내용은 1911년과 1938년의 우리말 성경들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어 성경들은 오히려 MT에 근거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어 성경이 LXX와 유사하게 번역하고 있으며, 우리말 성경도 일본어 성경과 유사하게 LXX의 본문을 번역하고 있다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최초의 우리말 성경 『성경전서』의 번역 과정에 있어서 일본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40) 특이한 점은 이 1955년판 일본어 번역 성경은 MT(*Biblia Hebraica* 제3판)뿐만 아니라, **LXX**와 시리아어 성경 그리고 라틴어 성경도 참고했다. 일본어 성경들의 우리말 번역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강우원용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41) Doron B. C., *The Japanese Translations*, 59.

42) Ibid.

43) Ibid., 60, 각주 18.

이다.

8. 결론

출애굽기 4:13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들은 1911년 『성경전서』 이후 일관성 있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의 의미로 번역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 이런 번역은 MT보다는 LXX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1911년의 번역위원회가 과연 MT와 LXX 본문을 사용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말 번역은 LXX에 기초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당시의 한국인 조사들이 참고했던 일본어 성경들 중의 하나였던 <메이지역>과 이를 기초로 번역한 <구어역>의 내용에서 우리말 번역과 유사한 점을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비록 『성경전서』의 번역위원회가 중국어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성경들에서는 현재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대본성경으로서의 가능성을 최소한 출애굽기 4:13에 있어서는 일본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단 한 절만의 번역 과정 분석을 통해서 『성경전서』전체의 번역대본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적어도 희미한 가능성의 빛은 비치게 되었다고 하겠다. 『성경전서』의 번역대본으로 사용되었던 많은 성경들 중에 일본어 성경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니 더욱 많은 구약성경의 구절들의 번역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일본어 성경의 번역대본으로서의 비중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1911년 『성경전서』의 번역 과정에서 사용했던 대본성경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대본성경으로 중국어 성경들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일본어 성경들의 대본성경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성경전서』 번역될 당시 한국인 조사들이 참고했던 일본어 성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런 일본어 성경 번역 과정에서 대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네덜란드어 성경과 스페인어 성경들의 내용도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⁴⁴⁾ 이 연구는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에 대한 더욱 심오한 이해

44) 네덜란드어 성경과 스페인어 성경의 번역이 일본어 성경의 내용(‘마땅히’ 혹은 ‘다른 적당한 사람’)과 유사함을 보여 주는 “should”와 “have to”를 사용해서 번역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Statenvertaling (Dutch, 1637)

Doch hij zeide: Och, Heere! zend toch door de hand desgenen, dien Gij zoudt zenden.

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면 관계상 본 연구의 후속편으로 남겨 놓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주제어>(Keywords)

출애굽기 4:13, 모세, 『성경전서』,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

Exodus 4:13, Moses, The Korean Bible, MT, LXX.

(투고 일자: 2020년 12월 30일, 심사 일자: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4월 15일)

But he said, Oh, Lord! send by the hand of him whom you should send.

Sagradas Escrituras (Español, 1569)

Y él dijo: ¡Ruego Señor! Envía por mano del que has de enviar.

And he said: Pray Lord! Send by hand of the one you have to send.

<참고문헌>(References)

- 김근주, 김선종, 김정훈,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
- 김근주, 김선종, 김정훈,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2-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94-121.
-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48-159.
- 김사요,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8 (2001), 216-229.
-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 대한성서공회, “한글성경 번역사”, 3. <성경 개역> (1938),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4 (2020.12.1.).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 민영진 박사 회갑기념 제 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 정일승,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우리말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40 (2017), 7-29.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I. Abrahams, tran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7.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 Cohen, D. B.,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Leiden: Brill, 2013.
- Dozeman, T., *Exodus*, Eerdmans Cri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 Houtman, C., *Exodus*, vol. 1, HCOT,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 Kürle, S., *The Appeal of Exodus: The Characters God, Moses and Israel in the Rhetoric of the Book of Exodus*, Paternoster Biblical Monographs, Milton Keynes: Paternoster, 2013.
- Propp, W. H. C., *Exodus 1-18*, AB, New York: Doubleday, 1999.

Römer, T., “From the Call of Moses to the Parting of the Sea”, T. Dozeman, C. Evans, and J. Lohr, eds., *The Book of Exodus: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VTSup 164, Leiden: Brill, 2014, 121-150.

Sarna, N. M.,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Utzschneider, H. and Oswald, W., *Exodus 1-15*, IECOT, Stuttgart: Kohlhammer, 2015.

<Abstract>

**Plausible Source Texts for The Korean Bible (1911):
Focused on Exodus 4:13**

Sok-Chung Cha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Most Korean Bibles have translated Exodus 4:13 as “Moses said, Oh Lord, Please send a capable man.” since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Korean Bible (『성경전서』) in 1911 and The Korean Revised Version (『성경개역』) in 1938. We notice that these translations are certainly not based on MT, which is the main basis for the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This study identifies the translation issue of the verse, and tries to find out the plausible source texts for the Korean Bibles, especially for The Korean Bible.

In the case of Exodus 4:13, all English Bibles were based on MT without exceptions. Our study indicates that our Korean Bibles seem to be translated according to the LXX instead of MT. According to MT, Exodus 4:13 would be ‘Please send someone whom you want to send.’ Moses simply asks that he does not want to lead the Exodus, and that God should send somebody else other than himself.

Furthermore, our Korean translation of Exodus 4:13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Japanese Bible (Meiji Version, 1877). This study shows that the translation committee members seem to use neither MT nor LXX, and that they certainly used English, Chinese, and the Japanese Bibles. Even though all the Chinese and English Bibles seem to translate Exodus 4:13 according to MT, whereas The Korean Bible translated it in a similar way to LXX and the Japanese Bible. This shows that among the source texts for The Korean Bible Japanese Bible could have played a certain role as far as the Exodus 4:13 is concerned. Therefore, Japanese Bible would be one of the possible candidates for the source text for The Korean Bible.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would be necessary to secure this plausible suggestion for the source texts for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Bible. Specifically Dutch Bible Statenvertaling (1637) and Spanish Bible Sagradas Escrituras (1569) need to be studied to search for more possible source texts.